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자유·정의를 위해 일한다

□.....다음 글은 제59회 총회의 아침예배 설교 내용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본 교단이 나아가길 비추어 보고자 여기 실는다편집자주.....□



그리스도 안의 화평

에베소 2: 11-12

안 병 무

본문의 내용은 다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이방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고 그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다. 둘째는 이 원수된 담은 그리스도의 피로 찢고 원수의 사이를 그의 몸으로 해소 시켰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할 집(κατοικητήριον τοῦ θεοῦ)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상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말씀의 개념들에 접근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자.

1.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란 구체적으로 유대 성전 구조와 관련이 있다. 성전에는 세 개의 담이 있다. 제사장장과 일반유대 男子들 사이, 유대 男子들과 유대 女人들 사이, 그리고 유대 女人들과 異邦人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에 담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담 일주에는 異邦人이 들어가면 죽으리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사실상 이방인이 이 담을 넘으면 어떤 형태로나 죽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담이며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과 같은 담이다.

이것은 유대인의 대이방인 감정을 압축한 것이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한태담이라고 했다. 무한태담은 저들의 눈에는 저주의 대상이다. 그런 뜻에서 유대인은 저들을 저옥에서 타는 燃料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저옥감이란 말이다. 유대인의 폐쇄성은 극단화되어 이방인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으며 만일 유대인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그는 죽은 사람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에 장례식을 올렸으며 그것은 이방의 어린이에 까지 적용되어 이방인 어린이가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경우에도 구해 주지 않을만큼 비인간화 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의 경우만이 아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을 할레담이라고 하여 멸시했고 회람 인박의 민족은 모두 야만으로 보았다. 哲人 아리스토텔레스마저도 他民族을 짐승이라고 했고 플라톤은 他民族을 본질상 헬라인의 원수라고 했고, 그들과 休戰하는 전쟁 관계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며 저들의 원수의 관계다.

최근 세계는 이른바 冷戰時代에서 和解의 時代에로 물러가고 안간 힘을 기우리고 있다. 最近의 외선에서 커신

저를 中心한 美國의 外交의 哲學을 밝힌 바 있다. 커신 저 外交의 큰 동기는 이래로 나가다가는 人類가 멸종이 될 것이라는 대전제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이 人類 멸망의 危機를 모면해 보자는데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동기에서 온 外交方法은 現在의 모든 既得權을 그대로 인정하고 음성적인 것을 양성화 하자는데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過去의 잘, 잘못이나 과거의 소유권 따위는 묻지 말고 지금의 상태 그대로를 고정화하고 세계가 함께 인정해 버리게 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담은 그대로 두고 싸움은 말자는 국제정책이다. 이러한 和平이 얼마나 오래 갈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이 같은 추세에서 南北의담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늘날의 담은 國家나 民族間의 담만이 아니다. 우리는 東西, 南北, 빈부의 담, 世代의 담등 무수한 담이 점점 加重해 가는 현실앞에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점점이 쌓아진 담들에 차단되어 질식상태에 놓여 있다. 어쩌면 우리야말로 담과 담사이에 孤立된 전형적인 군산인인지 모른다. 이것이 위와 아래사이의 思考, 힘, 경제등의 유통과정을 차단하여 점점 쇠잔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政治的手法, 경제적 기교 아니면 기술과학의 발달에 기댄 것인가? 오늘날은 세계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런 것들이 발달되면 될수록 높아질 것은 담 뿐이다. 말하자면 네가 내것을 내게 되돌려 주면 내가 너의 것을 되찾아 침범하지 않도록 人間을 길들인 뿐이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強力한 權力에 호소하는 진박에 없게 된다.

2. 막힌 담을 헐 이

조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 또는 몸으로 이 원수의 담을 헐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理會이 아니라 告白이다. 그 원수의 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死線과 같은 담이 일제히 모르게 헐렸다. 그것은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미 같은 믿음, 같은 희망을 가진 공동체를 이룬데서 발견했다. 그러므로 그 이상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어떻게? 그것은 政治的手法으로나 武力으로나 外交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한 일이다라는 것을 發見한 것이 바로 이 告白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답은 有神論과 無神論의 담이었다. 유신론은 “조문으로 된 제명의 율법”으로 표상했으며 무신론은 “하나님도 없이, 희망도 버리고” 現在 손에 잡힌 것이 전부라는 생활로 구제와 했던 것이다. 만일 이 둘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싸우지 않는 길은 담을 높이고 분례선을 만들어 사람들로 제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을 인정하도록 길드리는 진박에 없다. 그러나 十字架의 事件은 유대교의 유신론의 표상인 조문으로 된 율법과 이방의 현실주

의를 폐기함과 동시에 그 사이의 막힌 담을 열어 버리므로 물을 하나의 새 存在가 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이다. 이 짧은 本文 평화(εἰρήνη)가 네번이나 반복된다. 그리스도는 화평이다. "물을 그 안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고", "런데 있는 사람에게 화평,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화평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한다.

그리스도 안의 화평이란 無事主義나 安逸主義와는 무관하다.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담을 그대로 두고) 변화를 무가해서 싸우지 않게 하는 것은 오늘날의 美國을 中心한 西方측의 화평의 정적인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의 화평은 아니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흡수 통합해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산세계의 실현을 위한 공산주의의 방법이다. 참 화평은 기독교를 철폐하는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기독교를 빼앗아 다른 쪽에 넘기는 따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第三의 기적이다. 그것은 유대인의 기독교도 이방인의 기독교도 아니다. 이 두 기독교는 그 사이의 담이 철필과 同時에 막혔었다. "그리스도 안"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자리에서 쫓겨나와 새롭게 만나는 장소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므로 유대인이요 이방인, 상천이요 노예 남자요 여자라는 담이 언제 무너지고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된 것에 놀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것은 모든 국경과 민족 사이의 담을 없는 곳이 아무 저해 받는 일이 없이 세계를 제정일일 진출할 수 있었다.

우리의 南과 北이 회담을 할때 그 동료를 얻것은 赤十字라는 第三의 기적에서 가능했다. 말하자면 太極圖로 以北에 갈 수도 없었고 공산당기도 以南에 올 수 없었다. 赤十字旗를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은 기독교를 안고 드나들 수 없으며 정치나 경제적인 무엇도 직접적인 통틀일 수 없었음을 말한다. 색이야 어떻게 직직자의 표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第三의 기적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十字型>을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 정권도 그것을 가르 막을 수 없었다. 물론 赤十字가 바로 그리스도의 十字架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표시는 물론 그리스도의 十字架에서 온 것이며 그 정신의 밑바닥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깔려있다. 물론 그 본래 정신은 退色하고 平面化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참 화평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상징할 뿐 아니라 오늘의 이 인류의 위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세계의 참된 화평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第三의 화평의 초석인 그리스도 정신은 그

리스도교가 자기만을 위한 화평을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는 동안 완전히 퇴색해 버리고 또 하나의 담을 쌓고 유대교가 범한 죄를 다시 범하여 歷史의 죄인이 됐던 것이다. 그것은 「내 것」 「내 기독교」에서 執着하면서 온 법적이다. 그리스도의 十字架는 철두철미 나를 위한 것, 세계를 위한 것. 말하자면 참된 하나님의 화평을 위한 것이자 「내 신앙」 「내 교회」 「내 교파」 「내 기독교」를 위해 생긴 사건이 아니다. 아니 이 事件은 그리스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人類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교회의 意味는 또 하나의 자신을 위한 集團, 이른바 우리를 위한 우리 集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人間사이의 막힌 담을 허는 第三의 기적으로써 그 意味가 있는 것이다. 누가는 교회의 단생을 오소절해 두었다. 그런데 오소절의 특징은 바로 무절된 言語의 담을 무너트림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화평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스스로를 위해서 폐쇄적인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를 심판한다. 한걸음 나가서 救濟주의 같은 것은 이미 화평의 복음을 전면으로 逆行하는 것이다.

3. 새 세계의 건설

第三의 기적을 갖지 않은 쪽의 파괴는 파괴를 연속하며 파괴이다. 참 파괴란 참된 새것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現在의 담을 한 가닥은 새로운 "하나님의 집", 즉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새 세계는 第三의 기적인 그리스도교를 버티물로 하고 건설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란 물론 또 하나의 聖殿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유대 성전을 再建하여 그리스도의 十字架 以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계의 그리스도교화가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집을 건설함이 아니라 征服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집을 건설하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라는 地평을 넘어서서 전 인류, 전 歷史라는 地평에서 봐야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실이요 "그리스도 안"의 뜻이다. 그리스도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몸이라면 그것은 자체가 건물도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머릿물이 돼야한다. 말하자면 스스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 자기를 비우는때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自己追求만 계속하는 西歐의 교회건물들은 一部 老人층에게는 찾아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사를 결정하는 데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교가 弱화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이미 교회와 사회 사이의 담은 철필다. 그리스도 안

□ 총회록 출간 발매 중 □

제58회 총회 회의록을 출간 발매 중입니다.

주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사무처로
(대체구와 서울 47번)

국 판 155원
반포가 300원

에서의 화평정신은 아직도 교회의 담을 쌓고 있는 이들에게서 떠나 무너진 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자기를 감추면서 제3의 거점위에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떠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전통적인 표현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화평의 정신은 넓은 담을 열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므로써 하나 하나 머릿물 위에 새 세 세워지는 백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들은 들이 합하여 새사람 되는 운동에 충주적 역할을 한다. 그것은 人間革命의 운동이다. 저들은 人間혁명에 第三의 거점에 옮긴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정신이다. 저들은 현재 유지를 위한 담에 도전한다. 까닭은 그것이 새사람의 길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絶對한 수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담을 점점 견고하게 하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그 담 안에서 자기의 安住만을 모색한다. 내 교회, 내 교파의 확장에 열안이 되고 담밖의 현실을 外界로 단정하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오물권의 배후진을 친다. 그러나 '外界'의 비극의 여파에 둔감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동동하게 하는 '위도'의 말로 편들어진다. 그러나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저들은 이미 우리 한국의 未來를 위한 대열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그리스도의 본뜻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 까닭은 저들에게서 참새 세계의 건설을 위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反해서 '너' 세계 또는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나타내는데로는 극히 적다. 그러나 저들은 최소한 民族의 次元에서 이 民族의 미래를 보고 싸우기 때문에 저들은 이 民族의 미래 건설의 대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들은 自身을 守護하던 담을 무너트리며 밖으로 나왔기에 넓은 관점에서 보면 불투명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조분으로 된 계명"을 도맡한 대열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새 세계의 主人公들이다.

우리는 民族적으로 총대한 시련기에 처해있다. 世界의 모든 담을 그대로 견고히 한다는 교학적 화해의 움직임을 속에서 이론과 "대결있는 대화"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을 뿐 어떤 第三의 거점에 못가지기엔 피비린내 나는 승부없는 투쟁속에 휘둘릴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마당에서 한국에서 상당한 數와 조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사명으로 받았는가? 여전히 사적인 福樂에만 몰두하는 宗教의 利己主義의 그늘에서 피안테의 노란만 부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世界, 오늘날의 人數史의 담을 열고 새 세계

건설을 위한 대열에 앞장선 것인가?

한국기독교교장회회는 스스로 의식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내 것, 내 기득권, 전통한 고정하트 바라세는 神化 되어가는 한국교회의 담을 열고 세계,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民族사회에도 進出한 先驅의인 역할을 했다. 그것은 확실히 遠視적으로 이 歷史의 未來를 내다보고 내던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그 數는 적었다. 그래서 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한국기독교교장회회는 갑자기 우리 民族의 視野에 들어오게 됐으며 뜻있는 사람들의 희망의 대상이 됐을 뿐 아니라, 세계 교회에게 하나의 산 교회의 상징처럼 크게 쓰여졌다. 그 까닭은 이 교단이 스스로를 지키는 담, 나를 수호하는 宗教의 利己主義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이 民族을 위해서, 民族의인 次元에서 和平과 正義와 自由를 위해서 투쟁하고 봉사하는 전통을 수습했기 때문이다.

이 교단은 자신을 소모하면서 歷史의 대열 앞에 섰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은 누락처럼 파급이 됐다. 이제 이 교단이 다시 자기의 時代의 使命에 대해서 온 교회에 제 사명에 의식화되던 그것은 확실히 이 民族의 歷史의 전기를 마련하는 큰 勢力이 된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 교단이 심을 씨는 밀 안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번 어떤 교단 - 偶에서 원래 교회는 宣敎하기 위해 존재한다. 견도가 초대교회 때에는 개인의 구원에 있었으나 신교는 人間의 全全體에 대한 구원이다.」고 하는가 하면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이것은 본 교단이 지금까지 주장해 오던 입장이 누룩같이 한국교회 전체를 번식할 한 정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自由人과 노예

를 6:18~25 갈 1:1

이 해 영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회귀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실존은 노예가 되어 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자유를 추구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성서에 제시된 신민의 역사도 자유를 상실하고 애굽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 그 억압의 굴레를 벗어 버리고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로

□ 교회 주소록 출간 발매 □

본 교단의 전국 교회 주소록을 펴냈습니다. 부록으로 각종 서식과 양식을 실었습니다.

주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국 판 85면

한국기독교교장회 총회 사무처로

(대체구좌 서울 47번)

반포가 250원